

대림산업, 본사 · 여수공장 압수수색

경찰, 정기보수 · 하도급계약 서류 압수 ... 안전관리상 과실 유무 조사

경찰이 폭발사고로 17명의 사상자를 낸 대림산업 본사와 여수공장을 압수수색했다.

전남지방경찰청과 여수경찰서 소속 형사들은 3월18일 오후 3시40분께 서울 중구 대림산업 석유화학사업부와 여수공장, 유한기술, 대전시 유성구 대림연구소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정기보수와 하도급 계약 관련 서류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를 분석해 작업경위, 하도급 계약과정, 사고원인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현장 감식 등을 벌였으며 대림산업·유한기술 직원, 부상자 등을 상대로 사고원인과 안전관리상 과실 유무 등을 조사했다.

특히, 폭발사고 원인과 관련해 대림산업과 유족 사이의 주장이 엇갈리는 분진과 잔류가스 이외에 열원 접촉에 따른 가연성 가스 폭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경찰은 공장 주변에 설치됐던 9개의 CC(폐쇄회로)TV 영상을 확보해 분석작업도 마쳤다.

폭발원인을 밝히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결과는 보름 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대림산업 여수공장에서는 3월14일 오후 8시50분께 HDPE(High-Density Polyethylene) 중간원료를 저장하는 사일로(Silo: 저장탑)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6명이 숨지고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3/19>